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책을 읽을 때는 모름지기 의심이 있어야 하니, 의심이 있어야 학문이 진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주자(朱子)는 ‘책을 읽으면서 크게 의심하면 크게 진보한다.’라고 하셨고, 또 ‘처음 읽을 때는 의심이 없다가 그 다음에는 점차 의심이 생기고 중도에는 구절 구절 의심이 생긴다. 이런 과정을 한 차례 거친 뒤에는 의심이 점차 풀려서 두루 꿰어 통하게 되니, 이러해야 비로소 학문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일대 단안(斷案)*이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저 성현의 말씀은 모두 평이(平易)하면서도 명백하니, 너무 천착*해서 별다른 뜻을 찾다가 스스로 혼란 속에 얽혀 들어서는 안 됩니다. 퇴계 선생(退溪先生)은 ‘책을 읽을 때는 별다른 뜻을 깊이 찾을 필요가 없고, 본문에서 현재 있는 뜻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적당(的當)하고 쉬우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문에는 진실로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후세 사람들은 해석할 때 반드시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 보고서 가장 근사한 것을 취합니다. 지금 그대가 책을 읽을 때 경전의 뜻과 견해가 다른 것이 있거든 그 견해가 다른 곳에 나아가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헤아려 보고 그 대목을 가만히 읊조리며 생각해 보면 절로 변별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사로운 선입견을 가슴 속에 걸어두고서 도리어 선유(先儒)*의 학설을 가지고서 자기 견해에 맞추려 한다면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거든 자기 생각대로 글을 쓸 것이지 무엇하러 애써 옛 성현의 책을 읽습니까.

-안정복, 「권철신의 별지에 답함」-

*단안: 어떤 사항에 대한 생각을 딱 잘라 결정함. 또는 그렇게 결정된 생각.
 *천착: 어떤 원인이나 내용 따위를 따지고 파고들어 알려고 하거나 연구함.
 *선유: 옛 선비. 또는 선대(先代)의 유학자.

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의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독서 능력에 맞게 독서 분량을 조절하며 읽는다.
- ② 책을 읽어 가는 과정에서 의문을 품으며 읽는다.
- ③ 다양한 참고 도서를 찾아 비교하며 읽는다.
- ④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며 읽는다.
- ⑤ 글의 내용을 요약하며 읽는다.

2.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나’에게 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나는 연암 박지원의 기행문인 『열하일기(熱河日記)』 중,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를 읽었어. 이 글은 필자가 강을 아홉 번 건넌 경험을 통해,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눈과 귀로 지각한 외물(外物)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어. 필자는 강물을 건너는 데 눈과 귀가 방해가 된다고 하였지만, 나는 오히려 강을 건널 때 눈과 귀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기관을 활용해야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 ① 책을 읽을 때에는 책에 담겨 있는 본래의 뜻을 헤아리며 읽어야 한다.
- ②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적절한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 ③ 독자는 필자의 생각을 다른 관점으로 바꾸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며 읽어야 한다.
- ④ 글의 내용이나 필자의 생각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 ⑤ 글의 종류를 고려할 때, 견문과 감상을 구분하여 여정에 따른 견문에 주목하여 읽어야 한다.

3. 다음은 친구들의 독서 습관을 기록한 독서 기록장이다. 독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윗글을 추천하기에 적절한 친구를 모두 고른 것은?

~~~~~

- 가희: 유명한 작가의 책을 골라 읽으면서 작가의 생각을 의심하지 않고 읽었어.
- 나희: 책의 내용을 내 상황에 적용하면서 내 가치관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해 보았어.
- 다희: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으며 책을 읽으면서 생긴 의문을 해소하며 읽었어.
- 하나: 내 가치관과 다른 구절을 여러 번 곱씹어보면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변별해 보았어.
- 두나: 책에 담긴 두 가지 뜻을 해석해 보고 조금 더 근사한 해석을 메모해 두었어.

- ① 가희, 나희, 다희
- ② 가희, 나희, 하나
- ③ 가희, 나희, 두나
- ④ 가희, 다희, 하나
- ⑤ 가희, 다희, 두나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소쉬르의 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뒤집는다. 소쉬르 이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소쉬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기호 체계를 통해 설명하며,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소쉬르에 따르면 언어는 기호 체계로,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의적인 체계이다. 기호란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표지를 이르는데,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진다. 기표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외적 형식을 ㉠이르며, 기의는 말에 있어서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를 이른다. 예컨대 언어의 소리 측면을 지칭하는 ‘산[san]’이라는 기표에, 그 소리가 지칭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평지보다 높이 솟아 있는 땅의 부분’이라는 기의가 대응하는 것이다. 소쉬르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며, 단지 그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약속일 뿐이다. 이는 ‘평지보다 높이 솟아 있는 땅의 부분’이라는 기의가, 한국어에서는 ‘산[san]’, 중국어에서는 ‘山[shān]’, 영어에서는 ‘mountain[máuntən]’ 등의 다른 기표로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언어는 자의적인 성격을 지닐 뿐이며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소쉬르는 사람들이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랑그’와 ‘파롤’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란 언어가 갖는 추상적인 체계이고, ㉢은 랑그에 바탕을 ㉣두고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이다. 소쉬르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발화를 하더라도 그 발화의 표현 방식이나 범위는 사실상 그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인 랑그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제약받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빨강 계통의 색을 ‘빨강다’, ‘시빨강다’, ‘새빨강다’, ‘불긋불긋하다’ 등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한국어만큼 빨강 계통의 색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다. 따라서 소쉬르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빨강 계통의 색을 그들이 사용하는 랑그에 맞게 인식한다고 본다. 이는 결국 랑그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휘를 선택하고 그것을 언어 체계에 맞추어 발화하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쉬르는 발화의 진정한 주체는 발화자가 아닌 랑그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결국 소쉬르의 언어학은 언어가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는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나)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비트겐슈타

인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의미사용이론’을 제시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일상 활동들의 맥락 속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한 타인의 언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가령 ‘빨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사전에 실려 있는 추상적 개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미술 시간에 눈앞에 있는 빨간 사과를 그려 보라는 교사의 말에 물감 중 필요한 빨간색을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의미사용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를 게임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예컨대 땅따먹기와 같은 게임의 규칙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땅따먹기라는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이런 게임의 규칙은 그것에 참가한 사람들이 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언어를 게임에 빗대어 설명한다는 것은 곧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람들의 삶과 엉켜 있으면서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을 언어의 모호성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크다’나 ‘작다’와 같은 표현들은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모호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이 없다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다. 더욱이 사람들은 간혹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이 오히려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될 수도 있으며,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오히려 융통성의 여지를 없앨 수도 있다고 말한다.

전통적으로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일은, 수많은 종류의 나무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나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개념을 사용할 때 그것의 적용 사례들에 어떤 공통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결국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맞물려 있어 삶의 양식이 다양한 만큼 언어 역시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가)와 (나)의 서술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에 대한 특정한 이론을 관련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 ② 언어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언어에 대한 관점들이 통합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언어에 대한 이론들을 시대순으로 나열하여 공통적인 특성을 도출하고 있다.
- ⑤ 언어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며 각 이론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5. **랑그**, **파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랑그는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수단이다.
- ② 파롤은 언어의 추상적 체계를 지칭한다.
- ③ 랑그는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이다.
- ④ 파롤의 표현 방식은 랑그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 ⑤ 랑그는 파롤을 바탕으로 발화자가 주체임을 드러낸다.

6. 다음은 온라인 수업 게시판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제: 다음을 읽고 소쉬르나 비트겐슈타인 중 한 명의 입장에서 이를 해석하여 댓글을 작성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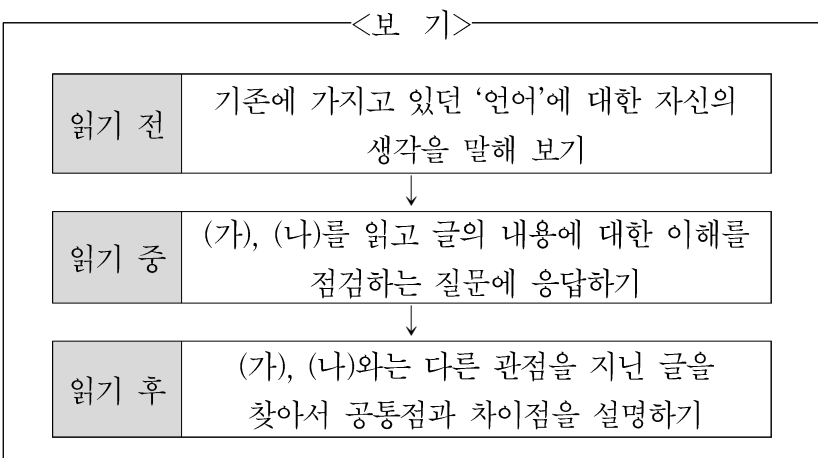
영어에서는 오징어[cuttle fish]와 문어[octopus]의 구분은 존재하지만 주꾸미와 낙지를 나타내는 단어는 없다. 물론 이들에 대한 생물학적인 학명은 존재하지만, 이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므로 사실상 그러한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영어권의 외국인들은 대부분 낙지와 문어를 잘 구분하지 못할뿐더러 맛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소쉬르의 입장에서 영어권의 외국인들이 낙지와 문어를 ( ㉠ ) 인식하는 것은 결국 언어가 현실 세계를 ( ㉡ ) 사례로 볼 수 있겠어.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오징어와 문어를 나타내는 단어는 영어에 있지만 주꾸미와 낙지를 구분하는 단어가 없는 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 ㉢ )에 따라 언어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어.

- |   |      |       |            |
|---|------|-------|------------|
|   | ㉠    | ㉡     | ㉢          |
| ① | 다르게  | 구성한다는 | 삶의 양식      |
| ② | 다르게  | 묘사한다는 | 높은 수준의 명확성 |
| ③ | 비슷하게 | 구성한다는 | 삶의 양식      |
| ④ | 비슷하게 | 구성한다는 | 높은 수준의 명확성 |
| ⑤ | 비슷하게 | 묘사한다는 | 삶의 양식      |

※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 과정이다. 7번과 8번 물음에 답하시오.



7. 다음은 '읽기 중' 단계에서 학생이 수행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응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질문                                                                | 학생의 응답 |     |         |
|-------------------------------------------------------------------|--------|-----|---------|
|                                                                   | 예      | 아니요 |         |
| 소쉬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        | ✓   | ..... ① |
|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나요?                            | ✓      |     | ..... ② |
|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은 모두,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나요?                        |        | ✓   | ..... ③ |
| 소쉬르는 비트겐슈타인과 달리, 언어가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나요?               | ✓      |     | ..... ④ |
| 비트겐슈타인은 소쉬르와 달리, 언어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나요? |        | ✓   | ..... ⑤ |

8. 다음은 '읽기 후' 단계에서 학생이 찾은 다른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주제 통합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말소리와 지시물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개념이 말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지시물은 개념을 통해 말소리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언어는 일정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 ㉡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언어의 의미는 곧 언어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이다.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존재하는 것이다.
- ㉢ 언어에서 사물의 이름은 임의적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다. 사물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닮고 서로 유사함을 나누어 가지며, 사물의 이름은 이런 자연의 법칙에 따라 지어진 것이다.

- ① 개념이 말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의 입장과 유사하게, 소쉬르는 언어가 기표와 기의의 대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② 언어는 일정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는 ㉠의 입장과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③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 입장과 달리, 소쉬르는 언어가 자의적인 성격을 지닐 뿐이며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④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존재한다는 ㉢의 입장과 유사하게,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먼저 있고 절대 불변의 법칙에 따라 세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⑤ 언어에서 사물의 이름은 임의적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의 입장과 달리,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6. 위 글과 <보기>를 읽고 ‘반도체 소자를 적용한 보청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보청기는 음향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주는 마이크로폰, 전기 신호를 크게 만드는 증폭기, 증폭된 전기 신호를 음향으로 환원하는 수화기로 구성되어 있다.

○ 진공관을 사용한 보청기는 1920년대에 개발되었고, 반도체 소자를 적용한 보청기는 1950년대에 개발되었다.

- ① 예열이 필요 없게 되었겠군.
- ② 진공관 보청기에 비해 부피가 줄어들었겠군.
- ③ 트랜지스터가 증폭 기능을 위해 사용되었겠군.
- ④ 내구성을 위해 보청기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었겠군.
- ⑤ 순수한 규소나 게르마늄만 가지고는 만들 수 없었겠군.

17.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준이 되었다
- ② 기초가 되었다
- ③ 기틀이 되었다
- ④ 바탕이 되었다
- ⑤ 발판이 되었다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그늘 내린 **밭귀둥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텃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 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채감이  
참깨를 털어 대는 일엔 회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썰 수 없이  
좌아좌아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에서 십 년을 가차이 살아 본 나로서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 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 낸다  
사람도 아무 곳이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좌아좌아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

(나)  
우리는 ㉠**씩어 가는 참나무** 때,  
별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괘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대 채 겨울을 난다  
함께 **씩어 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잠자던 흙씨들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우리는 서서히 **씩어 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오, **버섯이여**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덧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 나희덕, 「음지의 꽃」 -

(다)

지난주, 우연히 창고 뒤쪽의 목재를 정리하다가 보았는데, 놀라워라, 잘린 버드나무 몸통에서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뻗어 있었다. 제법 무성했다. 토막 난 버드나무는 외진 데서 살려고 기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도마뱀 꼬리가 눈앞에서 쭉쭉 자란 다 한들 이보다 놀랐을까. 나무토막은 “비록 영문 없이 뿌리는 잃었지만 나, 결단코 죽지 않아요.”라고 조용히 외치고 있는 듯했다. 그런 외침보다, 푸르디푸른 잎을 어떻게 하면 햇살을 더 많이 받아 뻗칠 것인가, 오로지 내 할 일은 그뿐이라는 자세였다.

잘 말려서 겨울에 땀감으로 쓰리라는 생각은 그 순간 사라져 버렸고, 악착같이 살겠다는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거기몰두하게 되었다. 동강 난 몸체만 남았지만 싱싱하게 푸른 잎을 밀어 올린 버드나무의 생명력은 식물에게도 혼이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하급의 층위가 아니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었다.** 잎이 특히 무성한 것들만 네 토막을 골라 마당 북판의 작은 우물에 일단 담가 두었다.

아파트 단지든 길거리에서든 눈에 띄는 대로 주워 오는 것은 잘린 버드나무뿐이 아니다. 버린 침대 밑바닥의 널조각도 외면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개중에는 향이 진동하는 질 좋은 나무도 있다. 깨끗한 자개상도 벌써 다섯 개나 모아 뒀다. 큰 밥상도 있고, 개다리소반도 있다. 멀쩡한 책상은 왜 그리도 자주 버리는지 알 수 없다. 선반이나 책장, 고가의 장식장도 적잖다. 튼튼한 의자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버리는 이유야 소상하게 알 수 없지만 흠집이 났다고, 유행에 뒤떨어졌다고, 산 지 오래 되어 싫증이 났거나 촌스럽다고 생각해 버리는 모양이다. 버리는 일에 도무지 주저가 없어 보인다. 버려진 물건들의 번듯함과 엄청난 양을 생각하면 몹시 우울해진다. 이렇게 멀쩡한 것들을 이토록 손쉽게 버리다니, 적어도 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다.

<중략>

사람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도시로 몰리고 손끝 하나 까딱 않고 뒤편 쉽게 사들이면서 타고난 손의 기능은 퇴화하기 시작

했다.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는 일보다는 새것을 사는 게 더 멋진 삶이라고 광고는 설 새 없이 부추겼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쉽게 굴복했다. 유한한 자연 자원과 그것들이 사람에게 오기까지 걸린 시간에 모두들 무감각해져 버렸다. 이런 무신경과 난폭한 낭비는 정말 벌 받을 짓이 아닐 수 없다.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고작 태우거나 묻어 버리는데, 묻어도 능사가 아니지만 태우면 더욱이나 안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든다. 이른바, ‘불필요한 생산’이다. 이렇게 과감한 소비 생활은 외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문명이라는 이름의 야만과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어찌 생각하면, 모두들 허무주의자들 같기도 하다.

“지구라는 우주선에는 승객은 없다. 모두 승무원일 뿐이다.”라고 말한 이는 맥루한이었다. 이 행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커녕, 시방 우리는 오만한 승객인 양 착각의 삶을 살고 있다. 물에 담가 둔 버드나무 토막을 보고 사람들이 “어쩌면 살겠네!”라고 한마디씩 건넨다. 나무는 아마 자신을 두고 한 소리라 알아듣지 않겠나 싶다. 살든 못 살든, 물이 줌 올랐다고 싶으면 대문 옆에 심을 생각이다.

- 최성각, 「버려진 것들의 생명력」 -

1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직접 인용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장소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대상의 상징성이 강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하고 있다.
- ⑤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가 머물러 있는 시적 상황을 현장감 있게 그리고 있다.

19. <보기>를 읽고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화자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이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로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노동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일을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에 가득 차 있다. 그런 화자에게 할머니는 순리를 따르는 삶의 태도를 일깨워 주면서 화자와는 다르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자는 이를 통해 결과에만 집착하는 도시적 가치에 익숙해져 있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있다.

- ① ‘밭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털던 개인적 추억을 바탕으로 주제를 이끌어 냈군.
- ② 일을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화자의 바람이 ‘힘을 더한다’라는 표현에 나타나 있군.

- ③ 화자가 할머니의 삶의 태도를 이해한 기쁨을 ‘휘파람을 불어 가며’ 노동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그려 내고 있군.
- ④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 참깨처럼 쇠아쇠아 쏟아지는 것들’에서 결과에 집중하는 화자의 태도를 통해 그가 도시적 가치에 익숙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군.
- ⑤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라는 표현을 통해 순리를 따르고자 하는 할머니의 가치관을 알 수 있군.

20. ㉠~㉣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벌목되어 죽어 가는 참나무 때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는 버섯을 키우기 위해 벌목당한 참나무들이 쌓인 공간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는 버섯이 피어나기 직전에 생명의 씨앗이 태동하는 기색에서 느끼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는 기다림 끝에 음지의 꽃으로 피어나는 버섯을 보며 느끼는 버섯을 키우는 사람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는 뿌리도 없으면서 참나무의 상처를 메우며 자라는 버섯의 강한 생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21. ㉠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으로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인격과 활동성을 부여한다.
- ② 자신의 생각과 반대로 표현을 함으로써 글쓴이가 원하는 의도를 강하게 전달한다.
- ③ 국어 문장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과 달리 단어를 배치하여 전달하려는 의도를 강조한다.
- ④ 글쓴이가 파악한 진실을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표현으로 색다르게 전달하여 깨달음을 준다.
- ⑤ 대상을 인식하는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하여 표현함으로써 대상을 보다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22. (가)와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가 대화를 나누는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 저는 참깨를 털면서 결과를 중시했는데, (나)의 화자는 버섯이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군요.
- ② (가)의 화자: (다)의 글쓴이가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책임의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게 들리는군요.
- ③ (나)의 화자: 제가 음지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에 느꼈던 생명체의 끈질긴 힘을 (다)의 글쓴이는 버드나무에서 싹이 튼 걸 발견한 때에 느꼈을 것 같아요.
- ④ (나)의 화자: (가)의 화자도 저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사물들에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군요.
- ⑤ (다)의 글쓴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중시하다 보니 새것을 사는 것을 더 멋진 삶이라고 여기는 도시의 사람들처럼 (가)의 화자도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등한시하고 있었군요.

23.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악착같이 버티는 자세는 귀족과 같은 품위가 느껴지기보다는 하층민 같은 느낌을 준다.
- ②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줄 알아야 높은 층위의 영혼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 ③ 힘든 상황에 처해서도 굴하지 않고 버티는 의지를 보면 그 존재는 상당히 고결한 정신을 지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④ 식물에게도 혼이 있다면 각각의 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선천적으로 부여된 것이므로 신분 계급과 같은 속성을 지닌다.
- ⑤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이 지닌 생명은 동질적으로 볼 수 없다. 주어진 여건에 순응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보다 수준 높은 존재가 되는 방법이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전쟁 중에 아내를 복에 두고 어린 딸만 데리고 남으로 온 남자와 결혼하여 살고 있다. ‘나는 남편과 결혼한 후 자신의 아이와 다름없이 정성껏 딸을 키우며 가정을 돌봤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남편이 그린 여인의 초상화를 보고, 남편이 전처를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고는 남편과 살아온 세월이 헛되다는 느낌에 빠져 무작정 온천이 있는 온양으로 여행을 떠난다. ‘나는 호숫가 여인숙에서 친절할 주인아주머니와 계속 도리질을 하는 노파를 만난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이십오 년 동안을 자는 시간만 빼고는 허구한 날 도리질을 하는 게 일이었다. 건강과 기분이 좋을 때는 미풍에 살랑이는 것처럼 보일 듯 말 듯 유연하게, 건강이 나쁠 때는 동작이 크고 힘들게, 마음이 불안하거나 집안이 뒤숭숭할 때는 동작이 좀 더 크고 단호하게, 마치 “몰라 몰라. 정말 모르다니까.” 하고 발악이라도 하듯이 죽자구나 도리머리를 어지럽게 흔든다. 그것 때문에 없는 돈, 있는 돈 굶어모아 한약도 많이 써 보았고 용하다는 침도 많이 맞아 봤지만 허사였다. 먼저 지친 것은 그녀 쪽이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죽는 날까지 놓여날 수 없는 업보처럼 그 짓을 고통스럽게, 그러나 엄숙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6·25 동란 통에 발작한 증세였다. 동란 당시 젊은 면장이던 그녀의 남편은 미처 피난을 못 가서 숨어 살아야 했다. 처음엔 집에 숨어있었지만 새로 득세한 패들의 기세에 심상치 않은 살기가 돌기 시작하고부터는 집에 숨겨 놓는다는 게 암만해도 불안했다.

어느 야밤을 타 그녀는 남편을 집에서 이십 리쯤 떨어진 광덕산 기슭의 산촌인 그녀의 친정으로 피신을 시켰다.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알게 감쪽같이 그 일은 이루어졌다. 어떻게 된 게 세상은 점점 더 못되게만 돌아가 이웃끼리도 친척끼리도 아무개가 반동이라고 서로 고자질하는 것이 성행해,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 이 마을 저 마을에 하루도 안 일어나는 날이 없었다. 끔찍한 나날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시어머니까지도 못 미더워지기 시작했다. 어리숙하고 고지식하기만 해 생전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행여 누구 꼬임에 빠져 남편이 가 있는 곳을 실토하면 어쩌나 싶어서

였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구굿셈을 익혀 주듯이 끈질기게 허구한 날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가르쳤다.

“어머님은 그저 모른다고만 그러세요. 세상 없는 사람이 물어어도 아범 있는 곳은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난리 나던 날 집 나가고 나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떼셔야 돼요. 입 한번 잘못 놀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요. 큰댁 식구들이나 작은댁 식구들이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쁜이 할머니가 물어도, 개똥이 할머니가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네, 아셨죠, 어머님?”

[A] 그녀는 힘차게 도리질까지 곁들여 가며 거듭거듭 이 ‘모른다’를 교습했다. 시어머니는 늘상 겁먹고 외로운 얼굴을 해 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몰라요, 난 몰라요.” 하며, 역시 도리질까지 해 가며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이었다.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적의 영신이라도 쫓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 소리 한번 제대로 난적이 없던 마을에 별안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 소사와 폭탄을 쉴 새 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콩뿔듯이 나더니만 이어서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집 속에 쥐 죽은 듯이 처박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간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빨갱이가 몰려갔다는 증거도 안 몰려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쪽에 붙어서 세도 부리던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인민 위원회가 쓰던 이장 집 마당 깃대 꽃이엔 아직도 그쪽 기가 펠럭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에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제까짓 것들이 여기서 버티 봤댔자 며칠을 더 버티겠느냐는 거였다.

텃밭엔 이미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잘 열 찬바람내기였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러 나갔던 시어머니가 별안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몰라요, 몰라요. 정말 난 모르단 말예요.” 소름이 쭉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영겁결에 뛰어나갔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 패잔병인 듯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 서너 명이 일제히 총부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

[B] 타났다가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 하고 못 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를 탄사람같이 드높고 새된 소리로 되풀이했다. 패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그라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쳤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길 기를 쓰

고 흔들어대던 도리질만은 그때 같은 박력만 가셨다 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

이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조금도 수다스럽지 않고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했다.

“이젠 고쳐 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단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도와드리다니요? 어떻게요?”

“당신 임의로는 못 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삼시잡수는 거라도 정성껏 잡숫게 해 드리고 몸 편케 보살피 드리고 뭐, 그런거죠 대사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거야 못 해 드리겠어요.”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이나 해 대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이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이주머니의 태도가 조금도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정말 대사업을 힘껏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긍지로 이주머니의 얼굴이 은은히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어쩌면 이 이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에 전율이 지나갔다.

점심값과 방값이 도합 팔백 원이라고 했다. 나는 천 원을 내주면서 그냥 넣어 두세요, 했다. 이주머니는 내가 불쾌할 만큼 굵실굵실 고마워했다. 아까 점심을 시킬 때도 그랬지만 통틀어 천 원인데 몇 푼 떨어지겠다고 저렇게 비굴하게 구나 싶었다. 이주머니의 비굴한 태도가 싫은 건 그만큼 내가 이주머니를 아끼고 좋아하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이주머니의 비굴한 태도는 몸에 배지 않고 어색하게 겹돌아 더 보기 좋았다.

이주머니는 내가 준 돈 천 원을 소중하게 스웨터 주머니에 넣고 나더니 지극히 안심스럽고 감사한 얼굴을 하고는 또 한 번 이상스러운 소리를 했다.

“이걸로 노자 해 가지고 서울 갈 겁니다, 오늘요.”

“서울을요? 왜요? 하필이면 이 추운 날.”

나는 나중 이 추운 날 소리를 하고는 내가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남편이 놀라면서 나에게 하던 말과 똑같은 말을 내가 했구나 생각했다. 문득 남편이 서럽도록 보고 싶어졌다.

“우리 아들이, 외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때 즈이 아버지가 그 지정 당하는 걸 내 등에 업혀서 무심히 보던 녀석이 벌써 그렇게 자랐거든요. 군대도 갔다 오고 삼학년인데 아주 착실하고 좋은 애죠.”

(중략)

“그럼 곧 떠나시겠네요.”

“네, 준비 다 됐어요 이웃 사람에게 어머님 부탁도 해 왔구요. 이제 곧 온 천장으로 나가는 네 시 반 버스만 오면 돼요.”

“동행하게 됐군요.”

“참, 그렇군요. 네 시 반 버스로 온천장으로 나가신댔지.....”

“아뇨, 서울까지 동행할 거예요.” 오늘 안으로 서울로 가리라는 결정을 나는 순식간에 내렸고, 그러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었다.

- 박완서, 「겨울 나들이」 -

2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사실적인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인물 간의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인물의 경험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특정 행동에 담긴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⑤ 서술자의 경험과 다른 인물의 경험을 결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2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어머니’의 도리질은 6-25 전쟁 중에 발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 ② ‘이주머니’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 ③ ‘이주머니’는 지금도 ‘시어머니’의 도리질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 ④ ‘이주머니’는 6-25 전쟁 당시 면장이었던 남편이 인민군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것을 염려하였다.
- ⑤ ‘나’는 점심값과 방값을 받고 지나치게 좋아하는 ‘이주머니’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2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드러난 ‘그녀’의 염려가 [B]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 ② [A]에서 ‘그녀’가 품었던 의심이 [B]에서 모두 해소되었다.
- ③ [A]에서 행해진 ‘그녀’의 노력이 [B]에서 역효과로 귀결되었다.
- ④ [A]에서 ‘시어머니’에게 한 ‘그녀’의 당부는 [B]에서 실행되지 못하였다.
- ⑤ [A]에서 맺은 ‘그녀’와 ‘시어머니’의 약속이 [B]에서 불가피하게 파기되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홀수형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탈’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며칠 전에 <세계 여러 나라의 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인상적인 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발표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던 중 마침 국어 시간에 ‘봉산 탈춤’을 배워서 발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 1을 가리키며) 이 탈의 이름을 아세요? (청중의 반응이 없자)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이에요. (대답을 듣고) 하회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군요.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하회탈 중 양반탈입니다. ‘봉산 탈춤’의 양반탈과 달리 눈 아래부터 귀 위까지 이어진 선이 눈꼬리와 겹쳐 미소를 만드는데, 단순한 얼굴형에 특별한 장식이나 화려한 색채 없이 눈썹, 눈, 코, 입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양반은 냉수 마시고도 이 쭈신다.”라는 말에 담긴 허풍과 여유가 동시에 느껴지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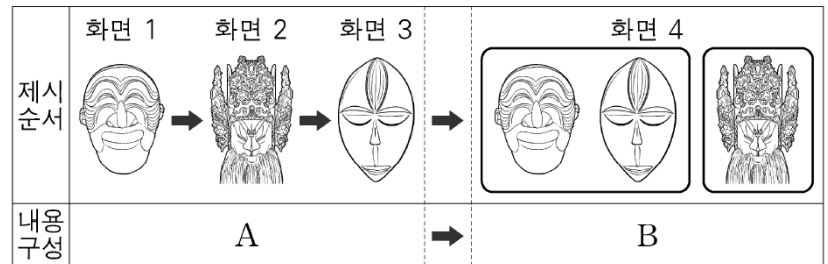
(화면 2를 가리키며) 이 탈은 중국의 장수 관우 탈인데요,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용이 새겨진 복잡한 모양의 관에 시선이 갑니다. 양반탈이 이마 부분까지만 표현돼 있는 것과 달리 관우 탈은 머리에 쓴 관까지 표현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강렬한 붉은색이어서 무시무시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얼굴과 머리 부분을 모두 이용해 관우의 박력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은 아프리카 카메룬의 탈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탈은 과장과 생략이 특징입니다. (화면 3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이 탈도 추상적으로 보일 만큼 과감한 생략이 인상적인데요, 단순한 곡선과 직선으로 표현된 커다란 눈이 작은 코와 대비되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탈들을 (화면 4를 가리키며)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표현된 왼쪽 탈들, 화려한 장식에 다소 복잡한 오른쪽 탈이 보이시죠? 이 차이가 탈의 용도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여 기회가 되면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이란 주제로 탐구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입부에서 발표에 사용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수업 시간의 경험이 발표 주제 선정의 동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④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36. 다음은 위 발표에 반영된 매체 자료 활용 계획이다. 발표를 참고할 때 A, B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A                            | B                               |
|---|------------------------------|---------------------------------|
| ① | 사용된 색채를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 탈들의 형태상 차이점이 부각되도록 구분하여 제시하기    |
| ② |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 탈들의 복잡성이 대비되도록 유형화하여 제시하기       |
| ③ | 인상적이었던 순서를 밝히며 각각의 탈 소개하기    | 탈들의 공통점이 드러나도록 순서를 변경하여 제시하기    |
| ④ | 지리적으로 인접한 순서를 밝히며 각각의 탈 소개하기 | 탈들의 관이 가진 장식성이 대비되도록 제시하기       |
| ⑤ | 표현된 선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 탈들의 선의 형태에 따른 분류 기준이 드러나도록 제시하기 |

37.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보기>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저 탈이 하회탈인 줄 알았는데, 하회탈의 한 종류였구나. 양반탈 말고 다른 하회탈도 설명해 주겠지?

○나도 관우 탈을 박물관에서 봤을 때에 정말 화려하다고 생각했었어.

○발표자가 말한 대로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에 대해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

- ①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듣고 있다.
- ② 발표를 들으며 갖게 된 의문을 해결하며 듣고 있다.
- ③ 발표자가 제안한 탐구 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듣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자의 설명에 공감하며 듣고 있다.
- ⑤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지식을 수정하며 듣고 있다.



[38~42] (가)는 텔레비전 방송의 인터뷰이고, (나)는 (가)를 시청하고 청소년 비즈쿨 축제에 참여한 학생이 쓴 수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 ㉠여러 청소년이 말한 바에 따르면, 요즘 ◇◇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청소년 비즈쿨 축제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축제 관계자 분을 모시고 여러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계자 : 안녕하세요?

진행자 : 비즈쿨이란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비즈쿨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계자 : ㉡비즈쿨이란 비즈니스와 스쿨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비즈니스를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즈쿨은 청소년에게 창업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가 정신을 가르침으로써 도전 정신과 진취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 저는 비즈쿨이라는 교육 기관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행하는 창업 체험 교육이라 할 수 있겠네요.

관계자 : 그렇습니다. ㉢비즈쿨 축제의 여러 전시 부스는 다양하고 유익한 여러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모아 놓은 것인데, 우리 비즈쿨 축제에서 옥석 같은 존재입니다. 비즈쿨에서는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즈쿨에서 하는 일이 청소년들에게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행자 : 비즈쿨 축제의 전시 부스는 여러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비즈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관계자 : ㉣비즈쿨에서는 학교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든가 외부 전문가 특강, 동아리 활동, 모의 창업 체험, 교내 창업 경진 대회, 비즈마켓 등과 같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비즈쿨 캠프에서는 4차 산업 혁명 기술 체험,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실전 창업 체험까지 경험할 수 있는 캠프 활동을 실시하고 있죠. 이번 청소년 비즈쿨 축제에 직접 가 보시면 또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진행자 : 비즈쿨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결과물들을 볼 수 있겠네요.

관계자 : 그렇습니다. 이번 청소년 비즈쿨 축제에는 전국에서 백삼십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만 6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그동안의 비즈쿨 활동 성과를 전시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 신기술 체험, 메이커 체험, 퀴즈 쇼, 기업가 정신 토크 쇼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즈쿨 축제에서도 비즈쿨 캠프와 마찬가지로 체험 활동을 제공하지만, 다양한 체험보다는 결과물 전시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비즈쿨 캠프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죠.

진행자 : 저도 어제 여러 부스를 돌아보았는데, 학생들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관계자 : 축제에 오시면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을 겁니다. 온갖 첨단 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지혜도 함께 얻어 가세요.

진행자 :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

나는 평소에 뭔가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동아리도 십자수 동아리에 들어 활동하고 있고, 학교 축제 때 전시회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마침 비즈쿨 축제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서 ㉡비즈마켓도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또래의 친구들은 어떤 물품들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해서 비즈쿨 축제의 여러 부스에 들르고 여러 체험을 해 보기로 했다.

실제로 가 보니 학교별로 무척 많은 부스들이 만들어져 나를 반기고 있었다. 친구들이 동아리에서 직접 제작한 물품들 중 나의 눈길을 끈 것은 친구들이 만든 이끼 테라리움이었다. 이끼 테라리움은 물, 이끼, 흙 등으로 이루어진 작은 정원을 담고 있는 유리병인데, 인테리어 소품도 되고 공기 정화까지 되는 ㉢일석이조이다. 나는 인터넷에서 이끼 테라리움 상품을 보면서 그 상품을 구입할 생각만 했었는데, 직접 만들어 전시하는 친구들을 보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전 정신과 진취성이 구현되어 있었다.

전시장 내 다른 쪽에는 신기술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레고 로봇을 조작해 보는 공간이 있어서 레고 로봇을 조작해 봤는데,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련 동아리에서 함께 힘을 모아 레고 로봇을 만들었다고 한다. ㉤신기술 체험 공간은 외진 곳에 있어서 찾아가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나는 지난 겨울 방학 때 방과 후 학교 수업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웠었는데 그걸 이렇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니 새로움을 느꼈고, 첨단 기술을 잘 익힐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A]

38. (가)에 나타난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계자'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관계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③ 자신의 경험을 통해 느낀 바를 '관계자'에게 밝히고 있다.
- ④ '관계자'의 답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 ⑤ 자신의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3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청소년들이 말한 바를 언급하면서 화제를 도입하고 있다.
- ② ㉡: 대상의 어원을 소개하면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③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인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 대상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⑤ ㉤: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홀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은 여러 의미 단위가 모여서 된 의미의 복합 단위이다. 형태소가 모여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된다. 따라서 형태소들의 의미의 합이 단어의 의미가 되고, 단어들의 의미의 합이 문장의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좋아한다.’와 ‘그는 나를 좋아한다.’를 보면 동일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감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의미 자체가 다르다. 재료가 같다고 같은 건축물이 되는 것이 아니듯 문장의 의미도 구성하는 요소와 거기에 적용된 결합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합성성의 원리라고 한다.

그런데 합성성의 원리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기본 원리 이기는 하지만 합성성만으로는 문장의 의미가 온전하게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장보다 덜 복잡한 단위인 합성어나 구만 보아도 의미는 합성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감기약’과 ‘취약’은 동일한 결합 구조를 가지지만 결합하는 대상에 따라 ‘약’은 치료하는 것과 죽이는 것으로 의미가 달라진다. ㉡‘척척박사’처럼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어 일반적인 결합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예도 있다. 또 ‘시치미를 떼다.’와 같은 관용적 표현들은 대부분 합성성의 원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언어 표현이다. 비교적 단순한 문장인 ‘아이가 달린다.’와 ‘차가 달린다.’와 같은 문장도 합성성만으로는 속도나 모양과 같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합성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의 의미도 사람들은 이해를 한다. 인지 언어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개념 구조들끼리 결합하면서 다른 개념 구조에 의해 적절하게 조정이 일어나 필요한 의미의 영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같은 ‘달리다’라 하더라도 ‘아이’, ‘차’라는 개념 구조와 결합하면서 거기에 맞는 모양과 속도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약’의 경우도 다른 개념 구조가 치료해야 하는 병인지, 죽여야 하는 대상인지에 따라 의미의 활성 영역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35. 밑줄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약’의 여러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모기약’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면 ‘감기약’에 사용될 때와는 다른 의미를 활성화하겠군.
  - ② ‘철수와 영희는 서로 사랑했다.’와 ‘영희와 철수는 서로 사랑했다.’는 구성 요소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의미 자체가 달라진 것이군.
  - ③ ‘표범이 달린다.’라는 문장의 ‘달린다’는 ‘표범’이라는 개념 구조와 결합하면서 ‘아이가 달린다.’에 사용된 것과는 다른 의미 영역이 활성화되겠군.
  - ④ 다른 사람을 놀릴 때 쓰는 ‘약을 올리다.’는 ‘약’, ‘올리다’와 같은 구성요소들과 그것들의 결합 방식을 파악하는 것으로는 의미 파악이 어렵겠군.
  - ⑤ ‘나는 그를 좋아한다.’와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의 의미 차이는 구성 요소와 결합 방식에 의해 생기는 것이므로 합성성의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겠군.

36. ㉠, ㉡과 유사한 사례끼리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 ① | 매운탕 - 갈비탕     | 덜밥   |
| ② | 감자전 - 녹두전     | 감짜쇼  |
| ③ | 오리구이 - 숯불구이   | 산들바람 |
| ④ | 국권 회복 - 피로 회복 | 벼락부자 |
| ⑤ | 노후 보장 - 생계 보장 | 가림막  |

37. <보기>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표준어 규정 제24항은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경음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용언의 어간이 비음으로 끝나고 뒤에 ‘ㄱ, ㄷ, ㅌ,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경음화가 일어난다. 피동, 사동 접미사가 결합할 때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4항은 음운적 조건뿐만 아니라 ‘용언 어간 뒤’와 ‘어미’라는 문법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파열음 뒤에서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경음화에 대해 규정한 제23항과 차이가 있다.

- ① ‘눈길’은 제24항의 규정에 따라 [눈꺄]로 발음된다.
- ② ‘(손을) 잡다’는 제23항의 규정에 따라 [잡따]로 발음된다.
- ③ ‘유해 물질’은 제24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물꺄]로 발음된다.
- ④ ‘(얼굴이) 닳다’는 제23항의 규정에 따라 [달 : 따]로 발음된다.
- ⑤ ‘(신을) 신기다’는 제24항의 규정에 따라 [신끼다]로 발음된다.

38. <보기>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다.  
 ㉡ 저는 예전에 공원에서 잠깐 인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 ① ㉠에는 서술절이, ㉡에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② ㉠과 ㉡에는 모두 체언에 조사가 결합된 관형어가 사용되었다.
- ③ ㉠은 ㉡과 달리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사용되었다.
- ④ ㉡은 ㉠과 달리 안긴문장에 객체 높임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⑤ ㉡은 ㉠과 달리 안은문장의 서술어가 두 개의 필수 성분을 필요로 한다.

(나)

| 글쓴이       | 내용                                                            |
|-----------|---------------------------------------------------------------|
| 제이슨307    | 칼슘 섭취가 대사 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가 유익했습니다. 05.05. 16:00            |
| 뉴스 보도 담당  | ㄴ, RE: 도움이 되셨다니 고맙습니다. 더욱 유익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5.05. 16:01 |
| 제이슨307    | ㄴ, RE: 실시간 댓글 고맙습니다! 05.05. 16:02                             |
| shine303  | 식품으로 칼슘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5.05. 16:03                 |
| 뉴스 보도 담당자 | ㄴ, RE: 식품으로 칼슘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보충제를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05.05. 16:05     |

40. (가), (나)의 매체 특징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매체 생산자가 시청자와 항상 실시간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 생산자가 한정되어 있어 폐쇄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매체 생산자가 음성, 문자, 영상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정보가 가공되고 유통되는 데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정보 제공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간적 제약을 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41.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대사 증후군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명칭을 제시하며 보도를 시작하고 있다.
- ② 기자는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말을 활용하여 보도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③ 기자는 한국인의 칼슘 섭취량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인터뷰에서 교수는 칼슘 섭취가 대사 증후군 발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수치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⑤ 기자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을 소개하고 칼슘 섭취에 신경 써 줄 것을 시청자에게 권유하며 보도를 마치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격식체 종결 어미인 '-니다'를 사용하여 공적인 말하기 상황에 맞는 상대 높임을 구사하고 있다.
- ② ㉡: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다'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추측성 표현인 '같다'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불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 부정 표현인 '못'을 사용하여 주체의 의지로 인해 일이 일어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종속적 연결 어미인 '-면'을 사용하여 앞 절이 뒤 절의 원인이 됨을 드러내고 있다.

[43~45] (가)는 학생들이 독도 캠페인 영상 제작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 채팅방 회의 내용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소영'이 작성한 스토리보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화방(4명)

소영 님이 초대한 회지 님, 승우 님, 준혁 님이 채팅방에 들어왔습니다.

오후10:20 소영: 각자 방과 후의 일정이 달라서 모임 시간이나 장소를 정하기가 어렵넹. 그래서 이번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채팅방에 초대했어. 다들 괜찮지?

오후10:20 회지: ㅇㅋ~ 나도 채팅방을 열까 고민했었는데, 역시 빠른 소영!

오후10:20 준혁: 나도 좋아. ㅎㅎㅎ 아까 스토리보드 제작에 대해 이야기하다 말았지? ㉠장면 #1에서는 독도의 풍광을, 장면 #2에서는 독도 승선 매표소를, 장면 #3에서는 승객이 검표원에게 승선권을 주는 모습을 보여 주기로 합의했었어.

오후10:21 회지: 그다음 장면은 어떻게 구성하지? 태극기를 크게 보여 주면서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냐?

오후10:21 소영: 실은 아까 너희들 가고 나서 승우랑 둘이 남아서 나머지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 봤징. 생뚱맞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장면 #4에서 독도 승선권을 보여 주는 게 좋겠다고 입을 모았어. 승선권에 한글이 쓰이지 않게 말이야.

오후10:21 회지: 그러니까 네 말은 독도가 일본 땅이 된 것을 가정해서 보여 주자는 거지? 대박! 승선권을 클로즈업으로 크게 보여 주면 더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그리고 배경 음악도 전환해 주면 좋겠다. ㉢장면 #4 이전까지는 잔잔한 분위기의 음악이 흐르다가 장면 #4부터는 무거운 분위기의 음악이 흐르는 거지.

# 정답 및 해설

## • 1회 •

### 정답

|    |   |    |   |    |   |    |   |    |   |
|----|---|----|---|----|---|----|---|----|---|
| 1  | ② | 2  | ① | 3  | ③ | 4  | ① | 5  | ④ |
| 6  | ③ | 7  | ④ | 8  | ④ | 9  | ④ | 10 | ④ |
| 11 | ③ | 12 | ⑤ | 13 | ④ | 14 | ① | 15 | ④ |
| 16 | ④ | 17 | ① | 18 | ⑤ | 19 | ③ | 20 | ④ |
| 21 | ④ | 22 | ④ | 23 | ③ | 24 | ④ | 25 | ③ |
| 26 | ③ | 27 | ③ | 28 | ① | 29 | ① | 30 | ④ |
| 31 | ② | 32 | ⑤ | 33 | ① | 34 | ② | 35 |   |

### 해설

[01~03] (독서 이론) 안정복, 「송암집」

#### 1. [출제의도] 독서 방법 파악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1문단에서 주자의 말을 통해 끊임없이 의심하며 책을 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 2. [출제의도] 독서 태도 비교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보기>의 '나'는 「일야구도하기」를 읽으며 필자의 생각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의 필자는 '경전의 뜻과 견해가 다른 것이 있거든 그 견해가 다른 곳에 나아가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헤아려 보고'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고집하기보다는 책에 담겨 있는 본래의 뜻에 집중하여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윗글에서는 책을 읽을 때는 모름지기 의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의심하지 않고 읽었다는 가희에게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다. 또 선유의 학설을 가지고서 자기 견해에 맞추려 한다면 이는 매우 옳지 못하다고 했으므로 자기 상황에 적용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해 보았다는 나희에게 추천하는 것도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경문에는 진실로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후세 사람들은 해석할 때 반드시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 보고서 가장 근사한 것을 취한다며 비판하고 있으므로 근사한 해석만을 메모해 두었다는 두나에게도 윗글을 추천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다희: 윗글에서는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의심이 없다가 그 다음에는 의심이 생기고 중도에는 구절구절 의심이 생긴다고 했다. 이런 과정을 한 차례 거친 뒤에는 의심이 점차 풀려서 두루 꿰어 통하게 된다고 했다. 다희는 이미 윗글에서 이야기한 대로 독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희에게는 추천할 필요가 없다.

하나: 윗글에서는 자신의 견해와 경전의 뜻이 다르다면 그 견해가 다

른 곳에 나아가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헤아려 보고 그 대목을 가만히 읊조리며 생각해 보면 절로 변별할 수 있다고 했다. 하나도 이미 윗글에서 이야기한 대로 독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할 필요가 없다.

[04~09] (인문) (가) 박영욱, 「보고 듣고 만지는 현대사상」, (나) 이병덕, 「표상의 언어에서 추론의 언어로」

<연계 : 수능특강 적용학습 인문·예술 01강 - 구조주의 언어학과 인류학>

#### 4. [출제의도] 서술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는 언어에 대한 소쉬르의 이론을, (나)는 언어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관련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5.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3문단의 '소쉬르는 어떤 사람이~지배되거나 제약받는다'고 주장한다.'를 보면 파롤의 표현 방식은 랑그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4문단의 '결국 소쉬르의~함축하고 있는 것이다.'를 보면 소쉬르는 언어를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3문단의 '랑그란 언어가 갖는 추상적인 체계이고'를 보면 파롤이 언어의 추상적인 체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3문단의 '파롤은 랑그에~구체적인 발화이다'를 보면 랑그는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4문단의 '하지만 소쉬르는~전제하고 있다.'를 보면 랑그는 파롤을 바탕으로 발화자가 주체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6. [출제의도]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보기>에는 영어권의 외국인들이 낱자와 문어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 (가)의 3문단의 '이는 결국~의미하는 것이다.'와 4문단의 '오히려 언어가~있는 것이다'를 보면 소쉬르의 입장에서 이는 영어권의 외국인들이 그들의 언어에 맞게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첫 번째 학생의 댓글 중 ㉔에는 '비슷하게', ㉕에는 '구성한다는'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보기>에는 영어에 주꾸미와 낱지를 구분하는 단어가 없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 (나)의 4문단의 '이는 결국~다양하기 때문이다.'를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이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삶의 양식에 맞게 영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번째 학생의 댓글 중 ㉕에는 '삶의 양식'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7. [출제의도]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2문단의 '소쉬르에 따르면~사회적 약속일 뿐이다.'와 (나)의 2문단의 '게임의 규칙은~만드는 형식에 불과하다'를 보면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은 모두 언어가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예'라고 한 학생의 응답은 적절하지 않다.

다.

- ③ ‘통합’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의 의미이다.
- ⑤ ‘유발’은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함.’의 의미이다.

[14~17] (기술) 「진공관과 트랜지스터」  
 <연계 :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 트랜지스터의 증폭 효과>

14. [출제의도]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트랜지스터의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다. pnp 혹은 npn 접합 소자로 불리는 트랜지스터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pnp나 npn 구조로 3개를 접합해 만든 것이다. 여기서 가운데 위치한 n형이나 p형 반도체는 진공관의 그리드처럼 증폭 기능을 담당한다. 즉 pnp 접합 소자에서는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고 반도체를 사용해 전류를 증폭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2문단에서 진공관의 개발이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의 출현 및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고 있다.
- ③ 플레밍은 에디슨이 우연히 진공에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발견한 것을 토대로 2극 진공관을 발명하였다. 3극 진공관은 2극 진공관이 발명된 이후에 개발된 것이다.
- ④ 4문단에서 pn 접합 소자가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⑤ 1문단에서 진공관 내부의 필라멘트를 고온으로 가열하면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된다고 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추론적 이해(시각 자료를 통한 정보의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는 잉여 전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n형 반도체에 해당하고, (나)는 정공이 있는 것으로 보아 p형 반도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 (나), (가)를 차례로 접합하면 npn 접합 소자가 된다. npn 접합 소자는 가운데 위치한 반도체가 증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잉여전자는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순수한 규소는 원자의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인 최외각 전자가 4개이며 최외각 전자들은 원자에 속박되어 있어 전류가 흐르기 힘들다.
- ③ (가)는 최외각 전자가 5개인 비소를 규소에 소량 첨가해 만든 n형 반도체이다.
- 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한 후 n형에 (-)전압을, p형에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른다.

16. [출제의도]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진공관은 부피가 컸으며, 유리관은 깨지기 쉬웠고, 필라멘트는 예열이 필요하고 끊어지기도 쉬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n형과 p형 반도체를 접합해 만든 트랜지스터이다. 따라서 ‘반도체 소자를 적용한 보청기’도 기존의 ‘진공관을 사용한 보청기’에 비해 부피가 작아졌으며, 유리관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예열도 필요 없어졌다. 내부를 진공으로 만드는 것은 ‘진공관을 사용한 보청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인데, 진공관을 사용하면 진공관이 유리였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반도체는 필라멘트가 없기 때문에 예열이 필요 없다.
- ② 반도체는 진공관에 비해 부피가 작은 장점이 있다.
- ③ 트랜지스터의 가운데 위치한 반도체가 진공관의 그리드와 같은 역할을 해 트랜지스터는 증폭 기능을 한다.
- ⑤ 규소나 게르마늄에 불순물을 첨가해야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17. [출제의도] 어휘·어법(어휘의 의미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의 ‘토대’는 ‘어떤 사물이나 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와 밑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토대’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기초, 기틀, 바탕, 발판’ 등은 적절하나 ‘기준’은 적절하지 않다.

[18~23] (갈래복합) (가)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 (나) 나희덕, 「음지의 꽃」 / (다) 최성각, 「버려진 것들의 생명력」  
 <연계 : 수능특강 적용학습 현대시 10강 - 참깨를 털면서>

18.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에는 ‘터다’, ‘더한다’, ‘털어 댄다’와 같은 현재형 어미가 사용되어 있고, (나)에는 ‘난다’, ‘피어난다’가 쓰여 현재 시적 상황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현장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나오지만, (가)에는 감탄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② (가)에는 할머니의 말이 직접 인용되어 있지만, (나)에는 직접 인용을 활용한 표현이 없다.
- ③ (가)와 (나)에는 모두 장소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가)와 (나) 모두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1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가)의 화자가 ‘휘파람’을 부는 이유는 참깨를 수확하는 기쁨으로 인해서지 할머니의 삶의 태도를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행을 보고 할머니와 함께 참깨를 터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추억을 소재로 하여 쓴 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힘을 더한다’라는 표현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는 <보기>에도 언급되고 있다.
- ④ 자신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에서 결과를 중시하는 자세를 읽을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보기>에서는 ‘도시적 가치에 익숙’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 ⑤ 참깨는 약한 힘으로 여러 번 두드려서 터는 것이 올바른 방식, 즉 순리이다. 그런데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고 싶은 화자는 힘을 더해 참깨를 털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세게 힘을 더해 참깨를 털다가 참깨의 모가지까지 털어지면 오히려 참깨를 터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할머니의 충고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화자는 매사 순리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보기>에도 이러한 생각이 정리되어 표현되고 있다.

20.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나)의 1행을 보면 ‘우리는 썩어 가는 참나무 때’라고 했고, 마지막 2행에서는 ‘우리의 몸을 /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참나무 때’ 혹은 ‘참나무 등치’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나)의 화자를 버섯을 키우는 사람으로 보고 감상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참나무는 잘려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썩어 가고 있다. 참나무의 입장에서 죽어 가는 고통의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② ‘폐역’이라는 표현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참나무가 늙어 죽은 것이 아니라 벌목에 의해 잘리고 쌓이게 됐다는 점을 드러낸 말이다. 그러므로 ‘폐역의 공간’은 참나무들이 쌓인 공간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않다.

**34.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보기>를 통해서, 기행 문학으로서 「연행가」의 가치는 여정 속에서 글쓴이의 생각이나 정서가 형상화된다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부심이 표출된다는 점에서 기행 문학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글쓴이는 예부에서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을 뿐 사행 신하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서 「연행가」는 외교적 업무를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외교의 기록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글에는 사신들이 자문을 바치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 서술되어 있다. 이것은 사행업무를 그려 낸 것이므로 「연행가」는 외교적 기록의 성격을 가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보기>의 내용을 보면 기행 문학으로서 「연행가」의 가치는 여정 속에서 글쓴이의 생각이나 정서가 형상되었다는 점이다. 글쓴이는 장안에 도착한 이후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연행가」는 기행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보기>에서 「연행가」는 청의 문화 및 문명을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문화·문명의 기록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글에서 중국의 신하들은 증자로 품수를 나타냈고, 공로 있는 사람들은 공작우를 달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복이 검은 비단 소두루막이고, 오색으로 수를 놓은 흉배를 앞과 뒤에 붙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청나라 신하들이 입는 관복의 복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청나라 문화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 ⑤ <보기>에서 「연행가」는 청의 문화 및 문명을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문화·문명의 기록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글쓴이는 고분성 삼층 문루와 사층 포루가 굉장하다고 하고, 길가의 집들과 네거리의 시전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독자는 이를 통해서 장안 거리의 문화·문명에 대해 알게 된다. 따라서 「연행가」는 청나라 문화·문명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화법과 작문]

|    |   |    |   |    |   |    |   |    |   |
|----|---|----|---|----|---|----|---|----|---|
| 35 | ④ | 36 | ② | 37 | ② | 38 | ① | 39 | ④ |
| 40 | ② | 41 | ② | 42 | ④ | 43 | ③ | 44 | ⑤ |
| 45 | ③ |    |   |    |   |    |   |    |   |

**35. [출제의도]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학생의 발표에서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장면은 여러 곳에 나타난다. 가령 2문단의 첫 문장은 청중에게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청중의 반응이 없자)」를 통해 발표자가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청중의 반응이 없자 발표자는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이라는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도입부에 해당하는 1문단에서 발표에 사용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② 발표자는 자신의 수업 시간의 경험, 즉 국어 시간에 봉산 탈춤을 배운 경험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경험은 발표 주제 선정 이후 발표를 준비하던 중에 생긴 것이다.
- ③ 발표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⑤ 마무리에 해당하는 마지막 문단에서 청중에게 매체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다음 탐구 주제와 연관 짓고 있으나,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36. [출제의도] 매체 활용 계획**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2문단의 양반탈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단순한 얼굴형에 특별한 장식이나 화려한 색채 없이 눈썹, 눈, 코, 입을 선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3문단의 관우 탈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양반탈이 이마 부분까지만 표현돼 있는 것과 달리 관우 탈은 머리에 쓴 관까지 표현」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문단의 카메룬의 탈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단순한 곡선과 직선으로 표현된 커다란 눈이 작은 코와 대비되어 더 두드러져 보인다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A에는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가 적절하다. 한편 5문단에서 「선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표현된 왼쪽 탈들, 화려한 장식에 다소 복잡한 오른쪽 탈」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B에는 「탈들의 복잡성이 대비되도록 유형화하여 제시하기」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양반탈은 「화려한 색채가 없이 표현한 것」이고, 카메룬의 탈의 색채에 대한 내용은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 ③ 발표자는 청중에게 각각의 탈이 인상적이었던 순서를 밝히고 있지 않다.
- ④ 발표자는 각각의 탈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순서를 밝히고 있지 않다.
- ⑤ 탈들을 소개하며 「선」을 언급하고 있지만 표현된 선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7.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저 탈이 하회탈인 줄 알았는데, 하회탈의 한 종류였구나. 양반탈 말고 다른 하회탈도 설명해 주겠지?」는 청중이 발표를 들으며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을 정정한 후, 발표 내용에 대한 예측을 드러낸 것이다. 「다른 하회탈도 설명해 주겠지?」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의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을 발표에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발표를 들으며 갖게 된 의문을 해결하며 듣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양반탈 말고 다른 하회탈도 설명해 주겠지?」라는 반응은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듣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발표자가 말한 대로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에 대해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발표자가 제안한 탐구 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나도 관우 탈을 박물관에서 봤을 때에 정말 화려하다고 생각했으므로 발표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자의 설명에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저 탈이 하회탈인 줄 알았는데, 하회탈의 한 종류였구나.」라는 반응은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지식을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8.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진행자가 관계자의 질문을 듣고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관계자가 「이번 청소년 비즈쿨 축제에 직접 가 보시면 또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지자 진행자는 그에 답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③ 진행자가 자신이 어제 부스를 돌아보았는데, 학생들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참 대단하다고 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느낀 바에 해당한다.
- ④ 진행자가 「비즈쿨 축제에서 여러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비즈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③ ㉔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2009~2015년 기간 중 세계 3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㉔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많'다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가율은 체코가 가장 높았으므로 우리나라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수정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에 '몸체는 PVC 재질이고, 지퍼는 철이어서 문제'라고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㉔를 통해 PVC는 재활용이 어렵고, 철은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㉔를 참고하여 ㉔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 ② ㉔에는 PVC가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하며, 질기고 깨지지 않아 필통 등에 쓰인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㉔를 활용하여 PVC로 학용품 생산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낼 수 있다.
- ④ ㉔에는 프탈레이트가 인체에 해롭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㉔에는 PVC의 재활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㉔와 ㉔를 참고하여 ㉔에 제시된 PVC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드러낼 수 있다.
- ⑤ ㉔은 필통의 재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PVC를 대체할 다른 재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㉔와 ㉔를 참고하여 필통의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유지할 경우에 재활용이 용이하고 프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는 PP로 바꾸어 달라고 수정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    |   |    |   |    |   |    |   |    |   |
|----|---|----|---|----|---|----|---|----|---|
| 35 | ㉔ | 36 | ㉔ | 37 | ㉔ | 38 | ㉔ | 39 | ㉔ |
| 40 | ㉔ | 41 | ㉔ | 42 | ㉔ | 43 | ㉔ | 44 | ㉔ |
| 45 | ㉔ |    |   |    |   |    |   |    |   |

35. [출제의도]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접속 조사 '와'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말이므로 앞뒤의 두 말을 바꾼다고 해서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모기약'에서 '약'의 앞에 오는 '모기'는 죽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감기약'이 아니라 '취약'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활성화된다.
- ③ 표범이 달리는 속도나 모양은 아이와 다르므로 '달린다'에서 활성화되는 의미 영역은 다르다.
- ④ '약을 올리다.'와 같은 관용적 표현은 합성성의 원리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 ⑤ 합성성의 원리는 구성 요소와 결합 방식으로 문장의 의미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와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구성 요소와 결합 방식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발생하는 예이므로 합성성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36. [출제의도] 의미 관계에 따른 합성어 종류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오리구이'와 '숯불구이'에서 '오리'와 '숯불'은 각각 음식의 재료와 불에 사용하는 재료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감기약'과 '취약'처럼 단어의 관계가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산들바람'은 부사인 '산들'이 명사 '바람'을 수식하는 구조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매운탕'에서 '매운'은 '탕'의 맛을 나타내고, '갈비탕'에서 '갈비'는 재료를 나타내므로 ㉔와 유사한 사례이다. '덮밥'에서 '덮-'은 용언의 어간이므로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㉔와 같은 구조는 아니다.

② '깜짝쇼'는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㉔와 유사하다. 그러나 '감자전'과 '녹두전'에서 '감자'와 '녹두'는 모두 '전'의 재료를 나타내는 관계이므로 ㉔와는 다르다.

④ '국권 회복'은 '(잃었던) 국권을 회복한다'는 것이므로 이 구조를 피로 회복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는 ㉔와 유사한 사례이다. '벼락부자'는 명사 '벼락'이 명사 '부자'를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㉔와는 다르다.

⑤ '노후 보장'과 '생계 보장'에서 '노후'와 '생계'는 모두 보장의 내용이므로 ㉔와는 다르다. '가림막'은 용언의 명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㉔와 다르다.

37.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에 관한 조항-경음화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잡다'가 [잡따]로 발음되는 것은 파열음 'ㅂ'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파열음 뒤에서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경음화에 대해 규정한 제23항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24항은 용언의 어간 뒤에 결합하는 어미라는 문법적 조건이 있어야 한다. '눈길'은 용언이 아니므로 제24항과는 관련이 없다.
- ③ '유해 물질'은 용언이 아니며, 비음이 아닌 유음 'ㄹ'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 ④ '답다'가 [담:따]로 경음화되는 것은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하면서 경음화가 일어난 것이므로 제24항의 적용을 받는다.
- ⑤ 제24항의 규정에서 피동, 사동 접미사가 결합할 때 경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38. [출제의도] 구조에 따른 문장의 종류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의 안긴문장 '인사를 드렸던'에서 객체 높임을 사용하고 있다. ㉔에는 이러한 높임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에는 관형절이 안겨 있지만, ㉔은 서술어 '아니다' 앞에 보어 '승리가'가 오는 문장으로 서술절이 안긴 문장은 아니다.
- ② ㉔에는 체언에 조사가 결합된 관형어 '우리의'가 사용되었지만, ㉔에는 관형어가 없다.
- ③ ㉔에는 관형절에 '예전에, 공원에서, 잠깐'과 같은 부사어가 사용되었지만, ㉔의 관형절에는 부사어가 없다.
- ⑤ ㉔에서 서술어 '사람이다'는 하나의 필수 성분을 필요로 한다. ㉔에서 서술어 '아니다'는 주어와 보어 두 개의 필수 성분을 필요로 한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 자료 탐구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㉔는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것이 맞지만, ㉔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으로'가 생략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는 '십'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십미'가 된 것이다. ㉔는 '불휘'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되어야 하지만 'ㅣ' 모음 뒤이기 때문에 '∅(영 형태)'가 된 것이다.
- ② ㉔와 ㉔의 조사는 모두 현대어 보조사 '은'에 대응된다. '남'은 양성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은'이 결합되었고, '말'은 음성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은'이 결합되었다.
- ④ ㉔와 ㉔는 모두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것으로, 조사는 현대어 '에'에 대응된다. '바를' 뒤에서 '애'가 사용되었지만 '서리'와 같이 'ㅣ' 모음이 있는 말 뒤에서는 '예'가 사용되었다.
- ⑤ ㉔의 'ㅅ'과 ㉔(하늘+ㅎ)의 'ㅎ'은 모두 현대어로 해석했을 때의 관형격 조사 '의'에 대응된다.